

도, 내일 지진 대피훈련

도, 시·군과... 다중이용 시설 등 훈련대상 선정 시범훈련도 병행

전북도는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경주지진 및 포항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전북도민의 실제 지진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대피 훈련은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전북도, 시·군청사(사업소, 읍면동사무소 포함) 및 전라북도 21개 출연기관이 총 365개 기관 1만4,70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아파트 단지 등 중점 훈련대상을 1개소씩 선정하여 시범훈련도 병행 실시 할 예정이다. 지진대피 훈련은 5월 16일 오후 2시

에 중앙경보통제소의 경보(사이렌)가 발령되면 훈련 참여자들은 2분여간 실내 대피를 하고, 진동이 멈춘 후 인근 공원이나 광장 등 옥외대피소로 대피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실제 가정하고 실시하는 이번 훈련에서는 지진 대피요령을 평소 잘 알아 불시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지진 발생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 대처하기 위함이 실질적인 훈련 목표이다.

따라서 일단 지진이 발생하면 사람이 실내에 있는 경우 책상 또는 탁자 밑으로 대피 후 흔들림이 멈추고 나면 전기 또는 가스를 차단하고 출구를 확보하며,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비상계단을 이용 신속히 이동하며, 이동시

에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펴 피난처나 광장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고층 건물에서 대피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되며, 계단을 이동하여 건물 밖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지진은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함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평소 대비 훈련에 적극 참여 하여 지진행동요령을 숙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디딤돌 앱을 통하여 동네 주변에 지정된 지진옥외 대피소를 미리미리 알아 두어 지진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군산을 살려달라” 6·13 지방선거 군산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서동석 예비후보가 군산시장 정문 현관에서 “군산을 헌신짝처럼 버린 정부와 집권여당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식탁식을 갖고 있다.

6·13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동향

“다목적 실내공간 확보... 예체능교육 강화”

김승환 예비후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예술·체육교육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며 주요 사업내용을 밝혔다.

14일 김승환 교육감 예비후보는 “예체능 교육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특기·적성 발굴을 위한 주요 정책”이라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 아이들의 미래는 학생의 문화예술적 감성 계발과 체력강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김승환 교육감 예비후보는 “올해 전북교육청 예산이 15.9%(4539억원) 증가했다”면서 “늘어난 예산을 학생들이 안전한 실내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목적 교실과 다목적 강당 시설을 확충(연 200억원)해 나가는 데 투입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김 예비후보는 1인 1스포츠 갖기,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소규모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초등학교 체육교과전담교사 100% 배치, 초등학교 수영 실기교육 3~5학년 전제로 확대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업 시행을 위해 연간 100억 원을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예술교육 활성화(연 51억원)를 위해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마을예술학교 운영, 예술교과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 학교 음악실 노후악기 교체, 모든 학교에 예술감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 예비후보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실 틈, 놀 틈, 잠잘 틈’ 등 ‘틈’이 필요하다”며 “교육재정을 확충해 아이들에게 모두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반

“교권3법 개정으로 교원 자존감 높여야”

유광찬 예비후보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교권보호와 교원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1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장했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교원들의 손으로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 교권이 얼마나 추락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특히, “전북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수많은 교원들이 상처를 입고 교권은 땅에 떨어져 최소한의 교원 자존감마저 짓밟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어느 것도 우위에 설 수 없으며,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교육감에 당선되면 학생인권과 교권이 동등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유 예비후보는 “교권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권이 존중되는 풍토를 만들고, 교원들의 상처 치유와 심리 상담, 변호사 지원 등을 윈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교권보호와 교원의 자존감 향상을 위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3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3법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을 일컫는 것으로, 교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한 법으로, 정권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민평당 전주시장 경선 방식 ‘잡음’

엄윤상 후보 “당, 법규 무시한 채 특정후보 영입 경선 수용

해당 후보 당내 여론조사 관철... 완전시민경선 방식 택해야”

이현웅 후보 측 “시민 경선 역선택 우려 엄 후보와 상의 우선”

6·13지방선거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로 나선 엄윤상, 이현웅 후보 간 마찰이 이번에는 ‘경선 방식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14일 엄윤상 후보는 전주시장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당이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특정후보를 무리하게 영입했지만 경선을 수용했다. 하지만 해당 후보가 당내 여론조사를 관철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주지역 시·도의원 후보자 24

명 중 22명이 영입 과정에 동원된 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력 항의했다.

엄 후보는 “당내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이들 시·도의원 후보가 만든 당원에 의한 진행이 되는 만큼 불공정한 경선이 불 보듯 뻔하다”며 “시간상 안심번호경선이 어려운 만큼 ‘완전시민경선’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후보는 “사면초가 상황이지만 대

승적 차원에서 경선을 승낙한 만큼 이현웅 후보께서 대법하게 저의 제안을 받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현웅 후보 측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갈등보다는 후보 협의의 통한 합의 도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측은 전화 통화에서 “시민 경선의 경우 역선택의 문제가 우려되는 등 어려움이 크지만 엄 후보와의 상의가 우선인 것 같다”면서 “후보 간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당 전주시장 후보 결정은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빠르면 오는 16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기동취재반

남북평화 공존시대, 공직자 자세 확립... 전주시, 청원공감한마당

최근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남북평화 공존시대를 맞아 공직자의 자세 확립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해 7월 민간전문가와 문화계, 학계인사 등 총 15명으로 출범한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그간 스포츠와 문화, 먹거리 등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전주형 남북교류 협력사업

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시는 14일 시청 강당에서 시청 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중 청원 공감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전주시가 남북평화통일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직원들의 남북평화 공존의 시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날 청원공감한마당 행사는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과 김홍광 NK지식인연대 대표가 강사로 초

청돼 강연했다.

한편, 이날 이날 행사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훈훈한 가족사랑 관련 동영상과 재난안전 동영상도 상영됐으며, 사회자는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 희망한 직원이 맡아 진행했다.

/기동취재반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